성곽마을 소식을 한자리에

성곽마을 소식지

2021 7 JULY vol.20

7월 성곽사협 이사회 개최



7월 8일 성북플랫폼에서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성곽사협 정기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곽마을 주민과 참석하신 이사님들의 근황과 현재 진행 중인 분과별 사업 현황,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진행된 지원용역 내용을 보고 받고, 지금까지의 성과물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곽마을 여행자센터는 기존 시범운영 방법을 재검토하여 이후로는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마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 공간을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곽마을 박물관에서는 혜화·명륜 성곽마을의 초청 전시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및 회비납부 명단은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해 사협의 현 재정상태를 보고하고 추가 조합원 가입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 길 마다치 않으시고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시어 성곽사협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설/기자

성곽마을기록단 7월 정기모임 개최



7월7일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에서 '성곽마을 기록단" 정기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기록단의 목적이 성곽사협의 활동을 알리고 주민네트워크 활발한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주민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기록단의 모습입니다.

나카이가와 아츠코/기자

혜화·명륜 성곽마을 초청전시 개최







성곽마을 박물관에서 성곽마을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초청전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초대된 마을은 혜화·명륜 성곽마을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일요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성곽길 풍경전 : 비어지다' 전시는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여러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전시에는 혜화·명륜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루재에서 운영하는 그림모임에 참여하는 주민 8명(곽병준, 김미희, 김숙영, 김은희, 김정완, 심정은, 이안나, 이주희)이 그린 회화작품 외에도 전시를 관람하러 온 방문객들이 성곽마을 박물관으로 오는 길에 마주친 성곽마을의 풍경들을 직접 그려 현장에 전시하는 관람객 참여전시도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민들의 그림으로 가려져 있던 성곽마을의 풍경들이 세상으로 나온 이번 전시와 같이 앞으로도 성곽마을 박물관에서 성곽마을 주민들이 가치공유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지혜/기자

성곽마을 여행자센터, 생기 넘치는 웰빙 가드닝



성곽마을 여행자센터가 초록빛 가드닝으로 화사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파릇파릇한 화분에 한번 더 눈길을 더 줍니다. 성곽사협 한설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가드닝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맘이 평생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김종대/기자

문 의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citywall_village@naver.com

성곽사협 임시이사회 개최



7월 26일(월)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의 임시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한 후,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의 공간 활용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 중 서울시 주거환경과와 성곽마을 및 성곽사협의 향후 비전에 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봉사자' 참여에 대한 이사회의 독려와 함께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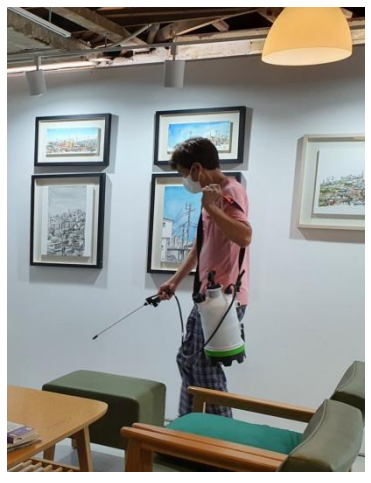
김다영/기자

성곽마을 거점시설 방역 실시









"떴다, 성곽사협 방역 특공대! 성곽사협 거점시설 방역은 우리가 한다." 성곽마을 거점시설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모조리 뿌리고 빡빡 닦고 문지르며 침투 공간을 막았습니다. 1차로 성곽마을 여행자센터를 찍고 2차로 성곽마을 박물관에서 바이러스 박멸, 3차는 성북플랫폼에서 마무리!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대/기자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봉사자 모집



성곽마을 앵커시설(지역거점시설)을 운영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차 모집기간은 7월17일부터 25일까지였으나 지속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추후 앵커시설은 봉사자를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 장소는 성북구 삼선교로에 위치한 성곽마을 박물관과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입니다. 봉사자에게는 1365를 통한 봉사활동 인증시간을 부여하며 일정시간 이상의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을 사랑하는 분, 성곽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은 분, 성곽마을 앵커시설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다영/기자

성곽사협 유튜브 채널 오픈





성곽사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게시된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곽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사람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 및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김다영/기자

혜화·명륜권 소식

혜화·명륜 성곽마을 대표 이주희

초복을 맞아 마을도시락으로 삼계탕 나눠



7월 11일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혜화명륜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루재 1층 주방에 마을도시락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주중에 마을도시락 봉사가 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초복을 맞아 혜화동의 조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게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생닭 손질부터, 닭죽에 넣을 야채 준비까지 마치고 커다란 화구에 냄비를 올리니 좁은 이루재 주방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 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삼계탕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봉사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했습니다. 또 그동안 마을도시락 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며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마을 어르신이 복달임 수박을 이루재에 가져오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먹지는 못했지만 봉사자들도 마음만은 시원했습니다. 혜화동 아이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 되었겠죠?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여러분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지혜/기자

광희·장충권 소식

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이승옥

기후위기 대비하는 생활 캠페인 진행



모이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텀블러 사용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유리 빨대 사용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 종이와 우유팩도 따로 모으고, 포장 박스에 붙여진 접착테이프도 꼼꼼히 분리해서 버리는 습관을 생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옥/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작은 마을' 골목길 개선 위해 디자인 업체 방문



7월 21일 디자인 업체 풍경에서 광희장충 성곽마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핑크색 골목, 파란색 골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골목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재생이 뭐가 있을까 의견을 주고 받으며 잠시 동네 분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에 의하면 50년대 시장으로 형성된 골목에 실향민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옛 분들은 여기를 56번지, 벌집촌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다들 '작은 마을'이라 부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동네가 지켜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더 편안한 공간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기자

구청 도심재생과 관계자 모이소 방문



7월 21일 모이소에 구청 도심재생과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모이소 모습이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나카이가와 아쯔코/기자

다산권 소식

다산 성곽마을 대표 이계용

담소정,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지도 작성



담소정에서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느 곳이 개선사업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 지도를 만들었고, 현재 동호로 195 파리바게트 옆 벽면과 동호로 196 GS편의점 옆 펜스에 마을 안내 지도를 부착해 다산 성곽길을 부각시키고 골목상권의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은희/기자

중구난방 악기연주회



폭염 속 중구 다산 성곽도서관에서 "중구난방" 악기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연주회에 앞서 6월 한달동안 다산동을 비롯한 중구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오래된 가구와 물건을 가져와 직접 악기를 만드는 체험과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25~26일에는 그동안 제작된 악기와 배운 연주를 주민들과 함께 음악으로 나누는 시간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다양한 물건과 소품들이 악기로 재탄생 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악기를 만드는 것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 직접 만든 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구 주민들에게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성관/기자

평화정, 어르신들의 시조창 교실



7월 7일부터 평화정에서 강숙현 선생님의 어르신 정가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60~80대의 성곽마을 주민입니다. 정가 중에서도 시조창과 비슷한 정통 가곡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정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내쉬면서 열심히 손 박자에 흥을 담아 배워 봅니다.

이현주/기자

행촌권 소식

행촌권 성곽마을 대표 김동수, 박명화

도시농업공동체 폭염속에서 감로꿀 생산



7월의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공동체는 파종과 채밀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10일 이상 지속된 올 여름 날씨 덕분에 3년 만에 감로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감로꿀은 폭염에 나뭇잎이 자기방어를 위해 생산하는 진액을 벌들이 모아 놓은 귀한 꿀입니다. 당도는 화밀보다 덜하지만 영양가는 일반 꿀에 비해 몇 배나 높아 인기가 많고 선주문을 받아 판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연 이은 폭염이 귀한 꿀을 선물해주니 반가운 폭염이 되었습니다.

김동수/행촌권 성곽마을 대표

이화·충신권 소식

충신권 성곽마을 대표 김영수

충신동 처음(初) 복(福)날 이야기



7월 11일 초복을 맞아 충신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원들이 마을 어르신들과 여름 나기 준비로 모였습니다. 더위에 쇠약해지는 체력을 보하기 위해 닭 170마리와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여 함께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끓여 마을 어르신께 전해 드렸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아 인사 드리는 행사였습니다. 폭염에 삼계탕 170인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였으나, 각 구역 통장님들이 직접 오토바이로 가가호호 배달해 주셨기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삼계탕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원분들, 그리고 통장님들의 배달까지, 충신동의 초복이 햇살보다 더 뜨거운 감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김영수/충신권 성곽마을 대표

성북권 소식

북정 성곽마을 대표 김경동

외국인 대학생 두 번째 북정마을 탐방 진행



7월 3일(토) 두번째 북정마을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서경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로코, 중국, 베트남, 일본, 우간다, 마카오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수월암에서 사찰음식 체험을 마친 후, 북정마을 김경동 대표께서 북정마을과 성북동에 대해 자세히 해설해 주셨습니다. 아직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곽사협 지원팀(공간매니저 및 코디네이터)이 통역과 보조해설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을 설명하니 외국인 학생들도 초롱한 눈빛으로 '암문'이 무엇인지, 광화문도 한양도성에 속하는지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북정 우물에서는 김경동 대표께서 깜짝 선물로 살구를 준비해 주셔서 참여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즐겼습니다.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고 살구를 깨끗이 씻어 먹는 재미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의 풍경을 만끽한 후, 성곽마을 앵커시설인 '성북플랫폼'에서 포토프린터로 출력한 즉석사진과 함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탐방을 시작으로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가치와 매력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김다영/기자

삼선권 소식

369 성곽마을 대표 김희준

369마을로 더운데 산책갈까?



예술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공연이 369마을에서 펼쳐졌습니다. 애초에는 버스킹부터 대면 공연까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방역단계가 격상됨으로 인해 더운데 산책갈까? 시즌3. "예술로 기억되는 성북in 서울"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극단 메모리의 〈행복한 연희〉는 수준 높은 연주와 멋스러운 춤사위, 그리고 전통의 소리 가락을 과감히 녹여내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울림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극단 나비날아의 〈선잠〉은 선잠제를 준비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의 비극을 다루었습니다. 비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서릉신에게 제사 드리는 선잠제는 성북동의 유명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극단 초인의 〈한 여름밤의 야외 낭독극〉은 동네 산책로에서 창문 너머로가 무대인, 마치 한 여름밤의 꿈처럼 일상을 파고드는 판타지를 전하고자 일상의 소소한 공간에서 야외 낭독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369마을의 공연과 프로젝트는 8월 중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김진확/369성곽마을